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15주일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합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로부터 배내옷을 얻어 입는 순간부터 죽어서 수의를 입는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농사지은 음식을 우리는 먹고, 어떤 사람들이 지은 집에서 우리는 살고, 어떤 사람들이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는 일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소중한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아니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은 자기 형제, 가족, 친척, 더 넓게는 학연, 지연, 또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 인가도 없고 계곡과 절벽이 첩첩이 들이차 있는 곳.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주검 상태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루카 10,31-33)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봉사해야 하는 사제와 레위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본다면, 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졌을 때 부정을 탈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레위 21,11)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제와 레위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주요 관심사는 ‘나’였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불쌍한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의’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제와 레위인과는 달리 생각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준다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하는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너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 관심의 차이가 이웃이 될 수 없게 하기도, 이웃이 될 수 있게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민현 테오도로 신부 | 사파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신명 30,10-14
- 화 답 송 ©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제 2 독 서 콜로 1,15-20
- 복 음 루카 10,25-37

초연함의 영성 2: 영적 쾌락 역시 집착이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많은 신실하다는 신앙인 가운데 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기도 때 느꼈던 평화로운 감정, 미사 때 맛보았던 뜨거운 느낌에 집착하다 보면 다시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마치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멀어지신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 토마스 머튼은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영적인 쾌락을 좇은 것이라고 말한다. “침잠과 내적 평화, 하느님 현존에 대한 느낌은 영성의 쾌락이고 다른 것들은 물질의 쾌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하느님의 무한한 기쁨에 절대 깊이 빠져들지 못합니다. 관상의 초보자들에게나 주어지는 보잘것없는 위로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새 명상의 씨』)

왜 영적인 쾌락에서 오는 집착이 영성 생활에서 해로울까? 영적인 기쁨이나 평화를 맛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기도와 침잠을 통해 우리 영혼이 오직 하느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은총의 선물에만 집착함으로써 결국 자기만족에 빠져 버리기 때문이다. 머튼은 “침잠(recollection)이라는 것도 결국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적 평화에 대한 느낌 역시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포도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 현존에 대한 체험적 ‘의식’은 맥주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또 하나의 피조물일 따름입니다”라고 영적 쾌락에 대해 경계를 한다(『새 명상의 씨』). 하느님과의 만남의 결과는 흔히 깊은 평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평화에 집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는 평화스러운 느낌은 항상 관상이 가져오는 뜻밖의 결과이다.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끝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화를 ‘체험’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 영혼의 참되고 본질적이며 생생한 일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머튼은 오히려 “우리가 평화나 하느님의 현존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 하느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참으로 현존하신다”고 말한다.

이러한 영적인 쾌락은 특별히 수도자들이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이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다. 물질적 쾌락이나 세속적 욕망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위해 기도와 단식, 신심활동이나 봉사, 영적 서적이나 영성 체계에 몰입하여 다양한 영성 공부와 온갖 좋다는 피정과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영웅적인 덕행을 쌓고, 모르는 묵상 혹은 관상 기도 방법이 없을 정도로 대단해서 마치 성인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과 집착으로 결국 교만의 영에 휩싸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진정 초연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들에서 적당히 물러서야 하며 사랑의 나눔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나 기대 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끊임없는 외적·내적 활동과 성취욕으로 결과에 연연하는 모습은 교회 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성과 위주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자신을 비하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 초연함의 영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초연함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 방조하는 것이 아니다. 초연함은 역경을 마주할 때 도인처럼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랑과 진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진리, 곧 하느님에게 집중할수록 결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초연함을 유지하면 우리는 낙담하는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 초연함은 자비에 비례한다. 하느님 사랑을 위해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충실함과 굳은 결의, 인내와 겸손을 통해 초연함에 도달하면 할수록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더욱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초연함은 결국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께서 더 큰 선과 자비를 믿고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여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머튼은 “너의 영혼이 지옥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러시아 수도자, 스타레츠 실루안이 받은 계시를 인용하며 우리가 지옥이라는 결과에도 초연함으로써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초보자에게나 주어지는 평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하느님의 현존이 가져다주는 감미로움에 대한 집착도 포기하자. 결과에 대한 집착도 주님께 맡겨 드리고 초연한 마음으로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자.



교구장 주교와 함께(Bishop's Appeal)

우크라이나를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놀랍도록 큰 모금을 만들어 주신 많은 분께 이루 다 표현할 길 없는 감사와 함께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를 주관해 주신 교구 평협 모든 간부들에게도 커다란 고마움을 전합니다.” -교구장 배기현 주교-

지난 5월 22일~6월 4일 기간 동안 주일미사 보편지향기도로 기도해 주시고 2차 헌금과 개별 헌금을 통해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아래와 같이 모금(₩118,330,839) 되었고 소정의 지출(₩2,366,900)과 송금(₩115,963,900)이 완료(6월 14일 ‘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우크라이나돕기’) 되었음을 알립니다.

모금 내역	수 입	지 출	
		내 용	금 액
본당(75), 공소(신현, 황리, 배둔)	85,928,400	인증수수료	4,400
기관, 단체(17)	11,433,471	현수막제작비	2,362,500
사제, 개인·일반(113명)	20,968,477	-	-
기타	491	-	-
계	118,330,839	계	2,366,900
잔 액(송금액)		115,963,939	

교구청 신축공사



옥상층 거푸집 설치



지하비트 관로



관로 공사를 위한 측량



치장 벽돌쌓기

장마가 시작되고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구청 신축사업은 공정률 48%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본관동 지하 1층 전기 소방 간선작업과 3층 소화 배관작업을 하고 있으며, 본관동 외벽에 붉은색 치장 벽돌쌓기를 하고, 2~3층에는 문틀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는 토목작업으로 건물 외부로 오배수관로와 우수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레미콘 운송 총파업이 2달 정도 이어짐으로써 본관동 옥상의 일부 콘크리트 타설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구민들의 열정적인 기도 덕분에 교구청 신축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 신학생 하계연수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성철 영성의 집에서 신학생 하계연수가 있었다. 이번 연수는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며 대화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과 ‘마산교구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신은근 바오로 신부(원로사목자)의 마산교구사 강의를 통해 신학생들은 마산교구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신학생들은 친교와 나눔을 통해 형제애를 돈독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모으고 나누어 바다의 별을 닦다

장평성당

항광지 가타리나

빼곡한 자동차 사이로 화관 쓰신 성모님의 미소가 보인다. 평일 낮미사에도 주차하기가 난감한 작은 성당마당이다. 음식점과 주점으로 둘러싸인 장평성당은 밤낮으로 밀려드는 소음의 바닷속에서도 반짝이는 별이다. 본당주보 ‘바다의 별’을 모신 값을 다하며 성심껏 복음을 전하는 보금자리이다.

작은 마음 조각 하나라도 나누면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요한 6,12)

성전에 들어서면 제대 왼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장병욱 베네딕토 주임 신부의 중요한 사목 지향을 말해 주는 구절이다. 지난해 부임하여 신자들과 사회 상황을 지켜 보면서 본당에 스며들 신심생활을 조성하고자 했다. 남은 조각을 모아 열두 광주리가 된 기적이 우리 생활에 파고들기를 희망했다. 힘들게 살아가는 신자들이라도 쓰고 남는 것이 ‘조금’ 있을 것이니, 버리지 말고 나누자고 했다. 기도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로 안부도 나눈다.

성탄카드를 본당에서 제작하여 신자들에게 배부해, 손편지를 쓰고 나누도록 했다. 쉬는 교우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든 마음 한 조각 전하라고 했다. 산다고 지친 신자들도 작은 것이나마 남은 돌아보는 힘을 모으고, 나눌 수 있게 했다. 코로나시기를 겪으며 피폐해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되게 했다. 손편지 쓰기는 올해 부활카드로도 이어져 따뜻한 정서를 남겼다. 열두 사도의 이름을 붙인 회합실도 나눔의 공간이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름을 붙인 접견실은 사제와 신자들, 신자들과 신자들 간의 소통이 정답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고비마다 그나마 순조로웠던 행보

미사를 마친 몇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역부장 소순연 안젤라, 여성부 총무 전승희 막달레나, 모니카회장 조무연 마리아, 홍보부장 옥영배 펠릭스, 전 구역부장 옥춘희 엘리사벳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1인 몇 역할을 하면서 발을 담가 있다고 한다. 3년 전쯤부터 수녀원 분원도 철수하여 모든 일들을 신자들이 맡아야 하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년pr과 소년복사단 관리도 신자들이 맡아 한다. 그래도 이 본당에 이어져온 ‘단결·화합’의 분위기가 자리 잡아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4년 고현성당에서 분가할 때부터 기금을 마련하려고 소매를 걷고 허리를 동여맨 노력이 2014년 하청성당을 분가시킬 때는 더 탄력이 붙었다. 좋은 아이디어로 물꼬를 트면, 물건을 파는 데는 이력이 낫다.





특히 장평성당 메이커 ‘한차’는 소문난 차라고 함께한 사람들이 한소리로 자랑한다. 대추 등 재료를 집집마다 분담해서 썰고, 한차를 만들어 파는 과정 속에는 신바람이 일었다. 10년 정도 한차로 인해 의기투합했던 시절이 큰 기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반찬을 만들어 팔고, 공소 물품을 팔며 공동체를 키우려 땀 흘리는 시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 펠릭스는 사목위원으로 오래 일하면서 여성부의 활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재건축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는 일련의 고비마다 신자들의 단합과 주축이 되는 여성부의 일사불란 행보가 빛을 발했다.

새바람 속에 희망 솟는 발돋움

올해로 첫 분당출신 신승혁 요한 사제가 탄생했다. 모든 신자들의 설렘 속에서 사제서품과 첫미사가 이루어졌다. 이제 출발이다. 현재 신학생이 두 명 더 있으니 계속 참다운 결실로 이어지길 기도한다.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조선업의 쇠락으로 거제지역은 어두운 터널을 겪었다. 여기는 조선업의 변화에 따라 분당 상황도 명암을 달리한다. 이제 조선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어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5월초에는 주일학교 개학미사를 했고, 레지오 브레시디움 별로 주회를 시작했다. 교중미사에는 5분 교리도 실시하여 가라앉은 영성생활의 맛을 찾아가고자 한다. 성모의 밤을 통해 공동체의 별이 되시는 성모님의 신심을 되새기고, 매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며 쉬는 교우들의 안녕도 빌었다. 그동안 미루었던 건물외벽 방수와 도색 등 보수공사도 올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마무리했다.



장병욱 신부는 찬찬히 촘촘하게 앞으로의 사목을 바라본다. 지난 2,3년간 신심단체가 거의 활동을 멈추었기에 성급히 한꺼번에 가동하기에는 무리다. 우선 올 하반기에는 레지오를 정비하려 한다. 2개 꾸리아에 20개 브레시디움으로 되어 있었지만, 몇 개를 정리하여 알찬 모습을 갖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구역부와 사회복지부의 활동이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살펴 나가려 한다.

거제도의 중앙, 진들(장평)지역에는 1934년에 첫 공소가 생기고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 1975년 고현본당이 먼저 설립되고, 1994년 장평본당이 분가하였다. 본당이 설립되어 30년에 이르는 한순간도 조용하거나 편안한 날이 없었다. 새 성당을 지어 이사하고, 빗 갓고 숨 돌리면 새 성당을 지어 내 보내느라 허리 펼 날 없이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다. 소중한 역사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면 잊히게 되므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신자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설립 30년 준비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교구/본당

- 전국 홍보국장 회의**
일시: 7월 13일(수)/ 장소: CBCK
- 전국 사회사목국장 회의**
일시: 7월 15일(금)/ 장소: CBCK
- 연구2년 영신수련 30일 피정**
일시: 7월 13일(수)부터
장소: 순천 예수회 영성 센터
- 가톨릭 성교육 강좌**
일시: 7월 16일(토) 14:00/ 장소: 교구청
- 도래사도 양성연수 2과정**
일시: 7월 16일(토)~17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청년 53차 선택주말 안내**
일시: 8월 12일(금) 19:00~14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47차<2017. 4.> 이전 참가자 재신청 가능)
신청: 7월 25일(월)까지 온라인 신청(<https://naver.me/xA3K12RB>)
문의: 대표봉사자 010·4288·2698

위원회/기관/단체

-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7월 모임**
일시: 7월 18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 2022년 가톨릭 상장례 교육 안내(2박 3일)**
일시: 7월 22일(금) 13:00~24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본당 연령회 회장단 및 봉사자, 교육 희망자/ 참가비: 1인 13만 원

신청: 선착순 80명, 7월 15일(금)까지 팩스로
신청서 접수(전송 247·7792)
계좌: 농협 301-0226-0503-81 (재)마산교구
준비물: 개인컵, 상장애식서, 필기도구, 미사준비
문의: 회장 010·4581·5420(김주화 프란치스코)

기타

-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성독)**
일시: 7월 23일(토) 10:00~16:30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집
준비물: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권벨라렛다 010·3271·0766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피정**
일시 및 장소: 중고등부-8월 9일(화)~11일(목)
경남 산청 성심원
일반부-8월 13일(토)~15일(월)
경기 양평 가리마스 피정의 집
주제: 링크: 다시 연결하기/ 접수: 선착순 모집
문의: 김중관 미카엘 신부 010·6608·3217
- 성모승천 전례피정**
일시: 8월 13일(토) 16:30~15일(월) 13:30
장소: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5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사전 녹화분)**
내용: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신약성경과 영성생활-하느님 나라+죄와 구원
가톨릭신앙과 영성 다시보기
성경대학: 요한복음 1,2,3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가톨릭 사회교리
꿈을 통한 영적 치유
나는 만나이다? 우리는 만나이다?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산청본당 제2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명훈(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상용(보니파시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순단(루치아)
총무분과위원장: 한정섭(아론)
재정·관리분과위원장: 이병균(프란치스코)
전례분과위원장: 김봉란(수산나)
복음화분과위원장: 박은순(루치아)
구역분과위원장: 문영희(클라라)
청소년분과위원장: 허정민(미카엘)
생태·환경분과위원장: 오명준(빈첸시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최명선(실비아)

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7.27 휴전협정을 종전 평화선언으로!

일시: 7월 23일(토) 08:30~16:00 (출발-창원시)
순례지: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합천원곡자료관 및 피해자 복지회관
접수: 7월 12일(화)까지, 60명
참가비: 5천 원
공동주최: 천주교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정의 평화위원회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주방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cecomasan@gmail.com)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 추후 개별 통보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한국외방선교회	-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Anna Organ

창원시 전애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전용선 안내 010 6409 4809
"조보 반주자 환영"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산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여름휴가 특선

설악 지리산권 2박 3일 성지순례

7월 30일/ 8월 1일/ 8월 13일
각 지역 출발
차량, 숙식 일체 258,000원
제이케이 트립 010.5150.2625

세계최초 음향표준 이어폰
당신이 꿈꿔왔던 감동의소리를 만나보세요

SONICAST djrem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
(네이버에서 '소니캐스트'로 검색 가능)
대표 이사: 이의렬 대건 안드레아/ 055-288-3768

선물

홍연수 마리아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오아시스처럼 싱그러운 선물은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더한다. 따사로운 마음도 그대로 담겨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빛이 발한다. 그리고 사랑이 꽃핀다.

몇 년 전 중학생 조카가 선물이라며 작은 종이를 수줍게 내밀었다. 처음으로 챙겨준 생일선물이라 설레며 종이를 펴보고 부푼 마음에 바람이 빠졌다. '이게 뭐야!' 엄지손톱 크기에 십자가를 어설프게 수놓은 옥색 천 조각이 붉은 줄에 달랑 하나 있다.

'그간 조카를 챙겨준 마음이 고작 요만했나.' 난 귀가 확 달아올랐다. 아플 때도 조카를 먼저 챙기며 힘겹던 마음이 스쳤다. 늘 마음이 먼저 가서 아끼며 사랑했기에 조금 서운했다. 선물을 보며 머뭇거리다 처음 받은 거라 눈에 띄게 운전석에 살짝 걸어 놓았다. 천 조각 실오라기가 하나씩 풀려 운전할 때 거슬려도 그냥 무심히 두었다.

막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그때 커다란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상을 선물하며 간절히 기도 하라고 했다. 부부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조카라 난 더 애뜻하다. 그러나 어린 조카는 날 어려워해서 더 세심히 살피고 몸도 영혼도 튼튼히 자라길 기도하며 챙겼다. 옆에서 지켜보면 내 바람만 커지는 사랑일 때가 많아 한계가 있다. 나와 세대 차이가 너무 큰 조카다. 늦게 얻은 조카딸은 사춘기가 되니, 몇만 부리고 비싼 선물을 기대하지만 난 물질 공세를 거부하는 소심한 이모다. 특히 요즘 신세대 감각이나 요구를 다 못 따라간다. 그리고 보니 감각이 남다른 어린 조카 맘에 꼭 드는 선물을 자주 못해 준 게 많다.

요리를 좋아하는 난 만드는 즐거움에 행복해져 음식 선물을 잘한다. 정성도 고스란히 담아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다양한 도시락을 만들어 가면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생기를 더해 서로 행복하다. 소박하지만 비타민이 되는 선물은 영혼도 살찌운다. 상대를 살펴보다 꼭 필요한 것을 기쁘게 챙겨주면 서로가 기억됐다. 그런데 요즘은 힘들고 다 귀찮아 누군가를 세심히 챙길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피하고 싶다. 작은 사랑 나눔도 망설인다. 이젠 그냥 편하게 지내며 받고 싶은 마음만 살짝 고개 든다.

나도 많이 지쳤고 위로가 필요하다. 내 뒤통의 십자가는 늘 무겁고 크다고 투덜대며 한숨이 가늘게 새어 나온다. 어느 날 눈앞에서 달랑거리는 천 십자가를 봤다. 문득 요만큼 작은 십자가를 주셨는데 힘들어만 하는 내가 보인다. 더 큰 십자가 고통 속에 사는 힘든 이들이 스친다. '요만큼도 못하겠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 빌면 목도 없다.'

당신 진리 안에서 기뻐했고 빛을 향해 걸으며 행복했다. 내 영혼을 늘 위로하신 그 은총은 까맣게 잊고, 원하는 것만 받고 싶은 철없는 마음이 아직도 남았다. 저 선물을 보고 당신 주신 작은 십자가 던지고, 더 가까이 오라는 손길마저 외면 말라고 일깨우신다. 이젠 부족한 날 바라보게 하는 십자수 한 조각 바람에 살랑일 땐 미소가 햇살처럼 퍼진다.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2 여름김장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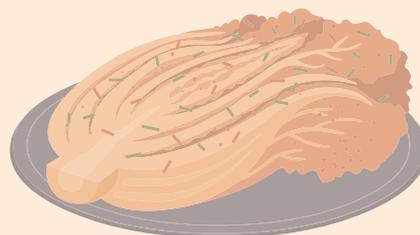
무더위에 식욕부진까지 올 여름도 걱정이 앞서는 우리 이웃 올해도 여름김장을 담급니다. 복지사각에 놓여 더 힘겨운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름김장을 선물해 주세요.

단기모금기간: 7월 11일(월)까지

후원계좌: 농협 301-0083-8432-91 성산복지관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단기모금 여름김장

여름김장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
복지사각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

만원 기부 물김치 김장

후원계좌: 농협 301-0083-8432-91
단기모금기간: 2022.07.11까지
연락처: 055)282-3737
입금 후 전화(기부금영수증 발급)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여호 1,1-9)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원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난 뒤, 그의 후계자가 된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순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따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곳에 체류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니 여행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압 평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수행할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여호 1,2-9).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순례 여정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여호수아라는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에프라임 지파 출신으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고쳐 불렀습니다(신명 13,16 참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족의 공격을 받아 그들과 맞서 싸울 때 이스라엘 진영의 지휘자로 그는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만남의 장막을 지켰고, 또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정탐에 나섰습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그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임무를 맡았습니다(민수 27,18-23; 신명 31,7-8). 여호수아기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르침을 실천한 이상적인 지도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를 모세가 했던 행위를 반복한, 그와 비슷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또 그는 모세가 한 명령을 충실하게 실행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를 모세의 전형을 따른 이상적인 지도자로 그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게 된 과정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술이나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거듭하여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과업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르단 강을 건너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의 규모는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큰 바다까지’입니다(여호 1,4).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엄청난 과업을 맡기시면서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여호 1,7). 그렇게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서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밤낮으로 되뇌어야 하고, 그 말씀을 모든 행위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하실 것이므로 아무 두려움도 갖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업이나 사업을 위해 먼 길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그들을 격려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